

남해관광문화재단 '그린 트럭 체인지 마켓' 진행

세계 환경의 날 맞이 친환경 캠페인 마쳐

기사입력시간 : 2022/06/08 [14:54:00]

박도영 기자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남해 미조면 일원에서 바다를 지키며 여행을 즐기는 친환경 캠페인 '그린 트럭 체인지 마켓'을 진행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난 4일 진행한 친환경 캠페인은 사전 모집을 통해 50명의 참여자를 선정해 남해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설리스카이워크를 체험하고 송정솔바람해변에서 남해 바다를 정화하는 쓰레기 줍기 활동을 전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송정솔바람해변에서 진행된 비치코밍(해변 정화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쓰레기 수거 도구를 들고 해변가 쓰레기를 담았으며 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쓰레기를 수거한 참석자들에게 비누, 쿨러백, 물병 등 한정판 굿즈로 교환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번에 제작된 한정판 굿즈는 친환경 제품으로 이루어졌으며, 쓰레기 수거에 사용된 봉투는 완전히 분해되는 소재로 제작됐다. 수거된 쓰레기는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모두 처리했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한국관광공사, 초소형 전기차 생산업체인 디피코와 협업해 추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관광객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단은 지난 2021년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반려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에 맞춰 ‘청정 남해’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남해는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마을,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장 큰 관광 매력이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마을, 사람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 조성 and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관광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